

이정미 “진중권, 심리적
피로감에 탈당 얘기”
“정의당 분란 과잉 보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탈당 입장을 밝혔던 배경에 대해 ‘심리적 피로감’을 거론하면서 정의당에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과잉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이상희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 교수 입장에선 조국 교수의 지인이요 (표창장 논란이 일었던) 동양대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피로감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추석 직전에 탈당의사를 밝혔다가 심상정 대표가 이를 만류했다”며 “진 교수가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창당 초기부터 함께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답을 했고 잘 마무리된 일인데 언론에 일파만파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정의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잉 뉴스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마치 진 교수 탈당 얘기가 당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조 장관을 데스노트(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한다는 조어)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대해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는 지적에는 “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완전히 100% 찬성,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절실함도 중요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해결해 나가는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시급성, 엄중함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과정에서 조 장관 분인과 가족에게 의혹을 넘어 사실로 판단된다면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 뒤돌아 앉아 있다.

조국 “檢 개혁 도움 부탁”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현명한 판단 믿어”

한국당, 등 돌려 앉아 야유...연단 서자 퇴장

조국 법무부장관은 26일 취임 후 처음 찾은 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

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본회의 연단에 설 때 등을 돌려 앉고, 인사말을 할 때 야유를 보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에게 질문을 시작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조국관련수사 檢에 고발 으름장 낫던 與, 이틀만에 “보류”

“바람직하지 않아...홀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고발은 보류하고 있고,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 (당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당장 고발할 수도 있다’던 강경모드에서 하루만에 ‘고

발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신중론으로 한발 물러섰다가, 이틀째인 이날 오전엔 ‘보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리적 검토까지 보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다 홀드(hold)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개별 검사에 대한 고발 요청들이 당내와 당밖으로부터 있었다”면서도 “그부분에 대해 원내 책임자인 이인영 원

내대표가 지금 상태로는 결정하지 말고 유보하자고 했다”고 고발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여당의 기류가 변화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어디에 고발할 지도 문제다. 고발하려면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을 공표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 검찰을 검찰에 고발할 수 없으니 경찰에 고발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유엔총회 마치고 귀국한 文대통령 조국·돼지열병·화재까지 현안 수북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떠난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국제공항(JFK)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이날(26일) 오후 2시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계기 취임 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5분간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의지와 ‘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휴’ 등에 뜻을 같이함으로써 가속화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청신호를 더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지난해 4·27남북 정상회담 당시 ‘관문점 선안’에 포함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화(대화)를 국제사회로 확장했다.

성공리에 방미를 마친 만큼 관련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하지만 당장의 국내현안이 적지 않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에 이어 25일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직진행보를 하고 있지만 두 자녀가 임시 관려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곧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주째 하락세를 나타내며 40%까지 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에 치른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득표율 4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경기 파주에 이어 인천, 김포와 인천 강화군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行) 비행기를 타기 전 환승을 나온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 예방 및 복구에 노력하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이어 당시 발생한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 화재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정 중이던 24일에도 경기 김포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또한 경찰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상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보험료	급여비	비율
1.1배	240,833원	고소득층
1.7배	125,531원	4분위
2.1배	79,147원	3분위
2.7배	48,103원	2분위
5.3배	26,697원	1분위

보건복지부, 호남신문 국민건강보험, 고지번호 1571-1000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